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49호 현대불교

29

2011년 8월 17일(음 7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창살 없는 감옥에서 마음이 벗어날 수 있어야

이 제주도 한마음선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두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교라는 자체를 똑똑히 알아 두어야 되겠습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일체 생명을 불(佛)이라고 합니다. 풀 한 포기 생명까지도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라고 한 까닭은 그 불로 인해서, 불씨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말과 말로 통하고, 일체 만물만생은 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공생·공용·공체·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이 진리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활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이 머리 깎고 목탁 치는 스님들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는 우리 삶의 생활이 그대로 불교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생명 아닌 것이 없고 같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고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든 틀이 아닌 깨달음에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교가 따로 국한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마는 우리 자체가, 생활이 불교만큼 그대로 다 불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씩씩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생활이 있는 것이고, 또는 부처도 있고 사대 성인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모두가 생긴 거죠. 가정도 그렇고 모두가 나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절이나 하고 물건이나 놓고 빌고 이라는 것을 불교로 알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 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지인이 돌아가는 삼세의 뜻을, 고정됨이 없이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영원히 돌아가는 그 자체를 일러 주시려고 49년을 설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기록에 고달라서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작업을 내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또는 이익이 없는 것이며 모두가 허덕허덕하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 줄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 때 인연에 따라서 모인 팀들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 있는 그 생명, 그 모습, 그 의식 자체가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여서 집합소가 되는 겁니다. 집합소! 한 덩어리가 생선이 되고 형성이 될 때 영혼의 근본 자체와 더불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연에 따라서 모든 악업 선업이 모인 팀들입니다. 우리 몸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의 근본 자체가 바로 불씨인데 그 불씨에 의해서 다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자기 몸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옛날에는,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이 내 인생 태어나니 한두 살에 철을 몰라서 이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자 난자

를 빌려서, 즉 몸을 빌려서 이 내 인생 태어나니 나를 알아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나를 형성시켜서 바로 나의 속에 들어 있으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내 마음은 바로 나의 걸잡이 인 것입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며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고 고장이 나면 고쳐 주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끌고 다니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은 여러분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 몸의 걸잡이인 것입니다. 바로 불성의 씨는 큰 에너지

와 같고 그 마음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다스림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하신다면 심성 과학일 수도 있고 심성의학일 수도 있고, 심성철학일 수도 있고 천문학일 수도 있고 천체물리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를 완전히 깨칠 때까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마음이 허덕거리고 벗어날 줄 모른다면 안 되겠으니 하는 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집을 다녀오실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어디 뭐가 놓여 있고 안방에는 뭐가 놓여 있고 신발장 위에는 뭐가 있고 그런 것도 다 다시

겠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오묘하고 광대무변한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마음의 법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불주머니에서 나와서 지금 불주머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항 속에서 사는 게 아닐까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손들어 보십시오. 공기가 한 치만 없어도 우리는 허공에 몸을 그대로 서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건 광대해서 공기가 있든 없든, 멀든 가깝든, 땅속이든 물속이든, 어디고 빛보다 더 빨리,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음으로써 그 바탕으로 하여금 광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전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자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통신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수화풍이 없다면 광력이든 통신력이든 전력이든 자력이든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전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이 이 도리를, 이 마음의 도리를, 광대무변한 도리를 다 아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어디에 선다 하더라도 구김살이 없을 것이요, 자유스럽게 사실 것입니다.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듯 정신계와 물질계는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제물 가운데는 일체 중생이 있고 일체 중생 가운데는 일체 부처가 있습니다. 중생이 없고는 부처도 없을 것이고 부처가 없고서는 중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속에 모든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일체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은 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이 어떻게 상대가 있으며 종교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이 도리를 완전히 터득을 하셔서 자유스럽게 되신다면 위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상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본문 중에서



# 이 세상은 에누리없이 자기가 한 대로 주어집니다

29면에서 계속

내가 나를 모르고는 상대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는, 안테나를 나한테 세워 놓지 않고는 통신이 올 수도 없고 통신을 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전화가 올 수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안테나를 세워 놓지 않는다면, 기복으로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밟고 온통 잘되게 해 달라고 아무리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공덕이 하나도 없고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공덕이라 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무거운 것을 들 때 열 손가락으로 다 함께 드는 것을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 덕도, 즉 마음이 돌이 아닌 까닭에 일체제불의 마음, 일체 중생의 마음이 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내면에도 같이 먹고 같이 하고 같이 거두고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는 없습니다. 나라는 게 따로 있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없노라. 네가 있다고 하지 말라. 네가 했다고 하지 말라. 네가 산다고 하지 말라. 네가 왔다고 하지 말라. 네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지 말라. 했다고 하더라도 함이 없느니라. 수역 마리가 바로 난인데, 네가 그렇게 많은데 따로 네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신 겁니다.

이 몸뚱이에 업식이 모두, 영계성 유전성 업보성 세균성이 모두가 다 부합돼서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끌여오고 이러한 작업을 바로 내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있는 악업 선업은 바로 숙명통 컴퓨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 있고 또 현실에 살아가는 대로 입력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던 좋은 일을 했던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잘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자꾸 입력이 돼서 돌아가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육신 속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서 그 생명의 의식들이 더도 없고 덜도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에 입력이 된 거는 더도 없고 덜도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마음을 잘 닦아서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하는 겁니다.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 네가 사는 것이고 내 몸은 집합소며 바로 심부름꾼이며 바로 관리인일 뿐이니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가는 것은 너다. 너 한 귀퉁이만 없어서도 나는 몸이 쓰러지고 승장이 돼! 그러니까 내 의식들이, 모두 한데 뭉쳐진 의식들이 다 하는 거니까.' 하고 믿고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바로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현재 들어가는 입력으로 인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짐으로써 팔자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도리를 잘 파악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이 모습이 떠나기 전에, 사대로 흠어지기 전에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알았으면 실천하면서 물질계나 정신계가 돌이 아니게 실험하고 체험해서 자기 자신이 자유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에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달을 일해야 월급을 받아 오듯이 에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대로, 한 대로, 생각한 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잘못 꾸고도 꿈을 잘못 꿴다고 생각을 하나기 잘못되는 것이지 생각을 너그럽게 해서 '돌이 아닌 까닭에 잘못됨이 없다.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화해서 나의 눈에 보이는 것뿐

시키고 창조력을 길러서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무술을 하는 데도 신경을 만들려면 내 혼을 다 놓아서 칼을 갈고 갈아야 바로 신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잠시잠깐 캠핑하듯이 나와 가지고서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그냥 세세생생을 말려서 허덕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알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짐승이나 미물보다가 몸을 바꿔 가지고 나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살았던 그대로 모습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상왕사에 꿩이라나 까치라나, 그런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죠. 까치의 알을 구해 주

식하지 말지요. 집을 보라고도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물을 가져, 또는 돈 내고 먹는다 하더라도 그저 맘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도 바람도 공기도 마음대로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한 줄을 모르느 겁니다. 당장에 공기가 없으면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고 당장에 물이 없으면 죽는데, 불이 없어도 죽고 흙이 없어도 죽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당장 걸러 준 부모한테도 감사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 자식한테 감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자기 자신들이 한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자기한테 닥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것이, 언짢은 일을 했으면 언짢은 것대로 이렇게 닥치는 것이니 그 마음이 바로 자기의 보배이면서도 채찍입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자기 채찍. 그래서 그 채찍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내에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는 방식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전부 틀렸어요. 말로 토론을 해서만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욕을 해 재계고 잘못한다 해서 때리기만 하고, 너는 그렇게 하나 강퍅밖에 못 찬다는 등 너는 그렇게 하나 그것밖에 못한다는 등 이렇게 한다면 그 음파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녕코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단을 넘어서고 마음의 작용에 의해 마음의 발전을 하면서 창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용도가 가정에 다치지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 주고 부드럽게 해 주고 나와 나와 물이 아닌 까닭에 바로 내면이 저 사람을, 저 애를, 저 부모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마음을 참담고 슬기롭고, 정말이지 아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도 너무나 없다.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그렇게 해 준다면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애들도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붙들어야지 육신을 붙들려고 아무리 잡아도 육신은 자꾸 달아나갑니다. 마음이 달아나니까 육신도 달아나가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으면 육신도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건 없는 사람으로서 모두 밝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상업을 하든지 공업을 하든지 또는 과학자든지 기술자든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바로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도리로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록으로 잘되게 해 달라고, 어느 바위 앞이나 어느 부처님 앞에 가서 그저 칠성, 무슨 산신,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습니다. 병이 들면 약사를 찾고 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산신을 찾고 각종의 이름을 다 부르고 다니시죠. 그런데 이런 거 보셨습니까? 관세음상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에 작은 관세음상이 두루두루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 상이 웃는 상만 있는 게 아니라 성난 상, 찌푸린 상, 아주 쾌활하게 웃는 상, 시무룩하게 있는 상, 여러 상이 있습니다. 열 개의 상이 있다면 똑같은 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몸에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8월 2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는데

이 광대한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쓴다면 안 되죠.

여러분이 부처라고 했고 만물의 영장이라 했는데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쓴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 뜻을 알고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다.' 하고서 바꿔 놓는다면 흰 물이 들어오는 거를 새 물로 바꿔 쓰는 거와 같습니다. 자유자재할 수 있는 이 광대한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쓴다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부처라고 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쓴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진짜 살아 나가려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알고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뜻으로 풀 천수경이나 뜻으로 풀 반야심경을 하는데, 들으면서도 거기다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열불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천수경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뜻으로 풀 것입니다. 또 뜻으로 풀 반야심경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그대로 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불은 열불이 아니라 바로 설법입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기울이고 들어서 지혜를 넓히고 발전을

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죽였는데 그 구멍의 부인이 원수를 갚으려고 남편을 죽인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기 그 까치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십리 밖으로나 몰라났다가 험한 날아들면서 그 종을 쳤습니다. 입 주둥이리가 다 무너지고 피가 낭자하게 되어 거기에 얼어져서 죽었답니다. 그분을 살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다 업신 여깁니다. 미물의 짐승도 우리 인간보다 낫습니다. 개라고 고양이라고 소라고 돼지라고 그저 아무렇게나 생각하겠죠. 돼지는 돼지 대접을 하겠소. 소는 소 대접을 하고 개는 개 대접을 하겠소. 하나 모든 짐승들도 은혜를 알고 나쁜 거 좋은 거를 알고 은혜를 갚는데, 인간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을 그렇게 낳아 주신 육의 부모의 은혜를 갚는게 너무 오히려 걸러 준 영광도 모르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실천을 안 하니까요. 말로만 '어머니 아버지 그 은혜, 참 고맙습니다.'라고 하지만 진정코 고맙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다 길러 줘도 어린애를 낳으면 또 자기 자

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지 다른 데 신이 나를 도와주고 다른 데 신이 나에게 벌을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식(惡識)에 의해서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나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나 바로 한군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한마음 속에서 투표를 해 보십시오.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했으며 악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 모두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 집합소 안에서 아마 투표를 해 줄 겁니다. 그 투표는 안에서 해 주는 것이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이 도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악하게 쓴다면 악한 마음이 연결돼서 돌아가니 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의 마음으로 연결돼서 돌아간다면 바로 허공에 연꽃이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우주간 법계에 두루 하여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체제가 철철철나 드시면서 나시고 나시면서 드시고, 그렇게 해서 자유스럽게 살게끔 여러분의 마음이 증득될 겁니다. 깨달아질 겁니다.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던졌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

합니다.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염장은 말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 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돌기캐펜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